

에게 문명과 크레타섬 발굴로 보는 역사학과 고고학의 관계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신화, 역사, 고고학

문자로 된 기록을 해독해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연구의 대상을 대개 역사시대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문자’로 된 기록이라 함은 문자언어으로써 종합적인 가치 체계를 표현하거나 적어도 그 흔적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록이 없거나 부실하다고 해서 역사학자는 역사서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았다면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흔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고인류학과 고고학이 나온다. 고인류학은 고생물학과 화석 인류학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인류의 진화와 이에 수반하는 문화의 변천을 탐구한다.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의 문화적 맥락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역사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우른다. 문자로 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구술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화는 일종의 밈(문화적 유전자)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에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문자 기록이 부족할수록 신화에 물증(유적과 유물) 등에

의존한다. 이 경우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반대도 존재한다. 고대사의 어려운 점은 여기에 있다.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반증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순간 정설 대접을 받던 기존의 학설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이 글에서는 에게 문명과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크레타섬에 관해 다룰 것이다. 우리가 서양고대사에 관심을 가질 때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떠올리곤 한다. 좀 더 거슬러 간다고 해도 미케네 문명이다. 에게 문명과 크레타섬에 관해서는 주로 신화를 통해 접해서인지 어디서부터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신화인지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워하는 듯하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을 중심으로 에게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잊힌 에게 문명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에게 해의 섬들이나 연안 지역들에서 금속과 돌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문화가 일어났다. 이를 에게 문명이라 한다. 그 전성기에 에게 해의 최대의 섬 크레타가 번영의 중심지였으며, 그것을 따로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른다. 기원전 1600~1400년 무렵이 크레타 문명의 절정기였다. 그 후 문명의 중심은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로 옮겨가고, 문명의 주역들도 교체된다. 크케는 미케네 문명을 에게 문명의 후반기에 포함시키며, 그 전성기는 기원전 1400~1200년 무렵으로 본다.

기원전 1200년에 접어들면서 에게 문명은 사라지고, 그리스 세계는 혼란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곧 다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새로운 그리스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선



미케네 문명 전성기의 에게 해 도시 분포 / 출처 : 위키피디아)

지 그들에 앞서 훌륭한 에게 문명이 존재했던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후 약 3000년 동안 로마인에게도, 유럽인에게도 에게 문명은 알려지지 않은 시대였다.

에게 문명의 존재는 고대 그리스인에게조차 잊히고 말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희미하게나마 흔적은 남기고 있었다. 신화와 전설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바로 그 문학적 흔적이다. 그것은 마치 찬란한 태양이 진 뒤 지평선 위에 어렴풋이 남은 노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서사시 속의 그 흐릿한 흔적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간주해왔다.

발견, 또 발견

그런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내용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고고학 발굴이 그 생각을 실증했다. 그가 바로 하인리히 슐리만(1822~1890)이다. 독일 북부에서 태어난 슐리만의 인생역정은 드라마틱하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호메로스를 탐독하면서, 언젠가 거기에 나오는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리라 결심했다. 슐리만은 사업가로 성공해 1871년부터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쏟아 소아시아 북서부 연안에 있는 히싸리크 언덕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발굴 결과, 그 언덕은 아홉 개 층의 유적이 겹겹이 쌓여 있는 언덕임이 드러났다. 약 2년

만에 그는 아래에서 두 번째, 즉 제2기층에서 여러 개의 멋진 황금제품을 발굴했다. 슐리만은 이 보물이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것이며, 제2기층의 도시는 틀림없이 호메로스가 노래한 트로이의 유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아테네 주재 독일 연구소 소속으로 슐리만의 발굴을 돕던 젊은 고고학자 빌헬름 뢰르펠트(1853~1940)는 밑에서 여섯 번째 층이 트로이 시였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1932년부터 트로이 지역을 재조사한 미국의 블레젠(1887~1971)은 트로이 유적은 제7기층에 속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발굴 성과에 고무된 슐리만은 호메로스 서사시가 믿을 만한 사료라는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역사학자로서 훈련받지 않은 슐리만이 사료 비판이라는 역사연구의 기본을 알 리는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슐리만의 무모해 보이는 열정 덕에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시에서 언급된 다른 성채 중 유적으로 여겨지는 곳들을 차례로 파헤쳤다. 그는 1876년에 미케네, 4년 뒤인 1880년에 오르코메노스, 1884년에는 티린스에서 각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케네 유적의 무덤들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출토품이 나왔다.

슐리만이 최후로 발굴을 기획한 곳은 크레타섬 북부 해안에 위치한 크노소스 왕궁터였다. 그러나 발굴지의 토지 매입, 출토품에 대한 소유권 등을 놓고 땅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는 크노소스 왕궁 발굴 계획을 단념하고 말았다. 훗날 그를 대신해 그곳을 발굴한 사람은 영국 고고학자 아더 에반스(1851~1941)였

다. 1900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에반스는 왕궁터와 왕비의 작은 별궁 등을 찾아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술리만이 맞은 셈이다. 이탈리아 발굴단이 섬 남쪽의 파이스토스와 아기아·트리아다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며, 1922년부터는 프랑스가 크레타섬 북쪽 해안의 말리아를 발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크레타뿐만 아니라 그리스 본토에까지 유럽 열강의 발굴은 본격화된 것이다.

발굴 결과 에게 해역에 한때 훌륭한 문명이 꽃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에게 문명에 대한 연구는 해가 다르게 진척되다가, 1939년에 착수한 그리스 본토 남단의 필로스의 ‘네스토르 성채’ 발굴에 힘입어 그 시대에서 사용된 선문자B가 1952년에 해독됨에 따라 에게 문명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신화에 의해 촉발된 관심이 고고학적 발굴로 이어졌고 문자의 발견과 해독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역사 연구로 귀결된 것이다.

크노소스 왕궁의 발견

술리만이 발굴을 단념했던 크노소스는 당시 케팔라로 불리던 구릉지대로 올리브밭이었다. 1878년 땅 주인 미노스 칼로카이리노스는 밭을 갈던 중 아주 오랜 건물의 토대인 듯한 구조물과 사람 키만 한 항아리, 소형가옥 등을 발견했다.

술리만이 포기한 지 10여 년이 지난 1900년 3월 영국의 고고학자 에반스는 100명 이상의 인부들을 동원해 그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에반스는 술리만과 달리 스코틀랜드의 유복한 제지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독일로 유학한 이였다. 그는 발굴을 시작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건물의 잔해 일부를



크레타섬 / 출처 : 위키피디아

찾아냈다. 발굴이 진전됨에 따라 웅장하고 복잡한 왕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도굴의 흔적은 없었다. 발갈이로 파헤쳐지지 않은 채 무성한 식물로 뒤덮여 있었던 덕분에 유적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반스는 “그리스 각지의 발굴 현장에서 지표에서 그 정도로 얇은 곳에 그만큼 많은 유물이 묻혀 있었던 예는 없었다.”고 말하며 발굴 당시의 흥분을 전했다. 홀연히 땅속에서 드러난 궁터는 크레타를 지배했다는 전설의 왕 미노스의 왕궁이 틀림없다고 에반스는 믿었다.

넌리 알려진 신화이지만 유적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바와 비교대조를 위해 소개한다. 크레타 왕의 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졌을 때 미노스 왕은 신들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노스 왕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닷속에서 수소 한 마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포세이돈은 그 청을 들어주었고, 덕분에 미노스는 왕이 될 수 있었다. 소원을 들어주면 그 소를 죽여 포세이돈에게 바칠 것을 약속했지만, 정작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소를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 미노스는 몰래 다른 소를 제물로 올렸다. 이에 격노한 포세이돈은 왕비 파시파에아가 그 수소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저주하여 분풀이를 했다. 소에 낚이 빠진 왕비는 아테네에서 도망쳐 온 기술자 다이달로스에게 소와 사랑을 나눌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다이달로스는 어떤 장치를 고안해 왕비와 수소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로 머리는 소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났다. 미노스 왕은 괴물을 가두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명해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복잡한 미궁(Labyrinthos)을 짓게 했다. 그 무렵 어떤 이유인지는

물라도 미노스는 아테네를 공격했으나 승패가 나지 않던 중 아테네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해 휴전협정을 맺었다. 협정에는 아테네가 매년 소년과 소녀 각 7명을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조항도 있었다. 조항 때문에 아테네는 매년 억울하게 젊은이를 잃었는데,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자청하여 제물에 섞였다.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반해 다이달로스에게 미궁 탈출법을 알아내어 이를 테세우스에게 알려주었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이고 미궁을 탈출했다.

신화에서 역사적 사실일 법한 것들만 따로 추출해보자. 먼저 미노스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 본토와의 세력 다툼에서 열세로 나타난다. 혹은 선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 다이달로스는 장인과 기술자의 존재, 산

업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후술하겠지만 미노타우로스는 소 숭배문화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로는 복잡하게 분화한 사회를 비유적으로 암시한다.

해양인의 문명

에반스의 발굴은 이처럼 믿기 어려운 신화 속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알려준다. 발굴로 드러난 왕궁은 170~180㎡의 면적에 평면적·입체적으로 비교적 복잡하게 설계된 건축물이었다. 어떤 곳은 3층이나 4층이었고 남북 방향으로 길고 널찍한 안뜰을 가진 이 건물은 한 층만 해도 방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 보였다. 동쪽과 남쪽으로 기울어진 대지 위에 세워져 있어서 동쪽의 3층은 서쪽의 제1층과 같은 높이에 해당한다. 구불구불한 복도나 그밖에도 곳곳에 계단이 있었던 듯하다. 이런 복잡한 구조로 보아 이 왕궁이 전설 속의 '미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방마다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에는 조공행렬이나 궁 안에서 노니는 궁녀들, 바다 생물, 원숭이, 들새 등이 등장한다. 또 남자나 여자가 돌진하는 소의 뿔을 쥐고 소 등 위에서 곡예를 하는 놀이를 그린 것도 있다. 출토품 중에는 소 대가리 모양의 제사용 그릇은 소가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전설

크노소스 궁전 / 출처 : 위키피디아



도 소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제사 때 미노스 왕이 소 대가리 탈을 뒤집어쓰고 소의 신 모습을 취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기원전 460~400년경)는 미노스 왕이 “가장 일찍이 해군을 조직해 오늘날(투키디데스 활동 시기) 그리스인이 장악한 제해권의 효시였고 섬들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적을 소탕하며 상업에서 이익을 거두려고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궁에는 특이하게도 방벽이 없다. 이 또한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미노스 왕이에게 해를 지배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공격을 받기보다 하는 입장이라면 섬에 왕궁이 위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방어시설까지 갖출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출토된 벽화나 도기에 그려진 돌고래나 문어 같은 어류, 해초, 조개, 게 등 해양생물, 그리고 파도 무늬 같이 주로 바다와 연관이 깊은 소재들은 크레타섬 주민이 바다를 중심으로 살았음을 웅변한다. 크레타 인이 강력한 해양지배 세력이었다는 투키디데스의 추측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적어도 크레타 인의 생활방식이 해양문화권에 속한다는 점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크노소스 왕궁이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였던 것은 이 왕궁의 기능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왕과 왕족의 거처이자 제사, 재판, 외교사절의 접견 등 왕의 온갖 업무와 공식 행사를 치르는 장소이고, 돌이나 금속 도구를 만드는 작업장이기도 했다. 또한 보통 사람의 키보다 큰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는 창고도 있었다. 창고의 크기는 왕의 재력과 권력이 상당했음을 말해준다. 아니면 왕은 주민이 수확한 농

산물을 일단 왕궁 안에 수납했다가 이를 배급하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왕궁에는 수세식 변소가 있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욕실 같은 공간은 왕궁의 도처에서 발견되었고, 에반스는 그곳이 정화의식을 거행한 장소였다고 추측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배수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욕실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파이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

크노소스 궁전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대략 같은 시기에 속하면서 기본 설계가 크노소스 궁전과 비슷한 왕궁들이 크레타섬에서 3개가 더 발견되었다. 하나는 크노소스 남쪽에 있는 파이스토스에 있다. 이 발굴은 이탈리아 학자들이 맡았으며 크노소스에서와 같이 1900년부터 시작되었다. 벽화가 없는 점, 궁의 동쪽에서 용광로가 발견된 점이 크노소스 왕궁과는 다르다. 또 바로 서쪽 해안 가까이에는 여름 별궁으로 쓰였다고 짐작되는 작은 궁이 있는데, 그곳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 하나는 크노소스에서 동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의 말리아에 위치한다. 이곳은 1922년부터 프랑스 발굴단이 작업했다. 왕궁의 남서쪽에서 8개의 원형건물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다른 왕궁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것으로 그 용도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식량창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왕궁 부근에 남아 있는 커다란 집이나 길의 흔적들은 그곳에 꽤 큰 부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가장 늦게 발견된 왕궁터는 섬의 동쪽 끝 해안의 자크로스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가장 늦은 1962년에 그리스 고고학자 플라톤에 의해 발굴되었다. 그는 현지의 한 농민이 병을 고쳐준 답례로 의사에게 준 출토품을 보게 된 것이 발굴의 계기였다고 기록했다. 현재는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 왕궁 남동부는 상당 부분 물속에 잠겨 있다.

크노소스 왕궁을 포함해 이 4개의 왕궁터 외에 섬의 서쪽 하나아에도 왕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크노소스와 다른 왕궁들은 서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크노소스 왕이 중앙집권적 세력을 형성했다고도 추측한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말리아 남쪽에서 미국의 고고학자가 발굴한 그루니아 유적은 처음에는 왕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수공업자 부락으로 바뀐 듯하고, 크노소스 궁전 서쪽 딜리소스에는 부농이나 귀족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3칸의 집터 등 흥미로운 유적은 많다.

크레타섬에는 이처럼 구석구석에 크레타 문명이 번영했던 시대로 안내하는 통로들이 흩어져 있다.

2월호에서는 에반스의 업적과 과오, 미케네 발굴과 선문자B의 해독, 크레타 문명의 붕괴를 다루겠습니다. 